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i>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i>			
보도 일시 2023. 2. 20.(월) 조간 2023. 2. 19.(일) 11:00	배 포 일시 2023. 2. 17.(금) 오후		
담당 부서 <총괄>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책임자	과 장 권영규 (044-200-5250)
		담당자	사무관 우승하 (044-200-5274)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중심으로 거듭난다

- 해수부, 부산시·전남도·경남도와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월 20일(월) 11시,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해수부-남해안권(부산·전남·경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3년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정책을 밝혔고, 부산·전남·경남 3개 지자체도 ‘22년 12월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3개 지자체는 뜻을 모아 남해안권을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벨트로 구축하고자 이번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추진전략 수립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지역별 관광자원 활용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 간 연계를 통해 해수부와 3개 지역 합동으로 올해 안에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필요성과 전반적인 조성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와

함께 3개 시도는 지역별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3개 시도와 해수부가 시너지를 발휘하여 남해안이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벨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금년 중 추진 전략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남해안을 시작으로 동해안, 서해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책임자	과 장 권영규 (044-200-5250)
		담당자	사무관 우승하 (044-200-5274)
	부산광역시 해양레저관광과	책임자	과 장 박경휘 (051-888-5350)
		담당자	사무관 이선화 (051-888-5353)
	전라남도 섬해양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태건 (061-286-6710)
		담당자	사무관 유재욱 (061-286-6740)
	경상남도 여촌발전과	책임자	과 장 표주엽 (055-211-3260)
		담당자	사무관 박은영 (055-211-3292)